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피스컵 축구대회 오늘 팡파르

‘K-리그 챔피언’ VS ‘축구종가 자존심’



(성남 일화)

오후 7시 개막전

(볼턴 원더러스)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성남 일화가 2007 피스컵코리아축구대회(피스컵) 개막전에서 ‘축구종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볼턴 원더러스와 충돌한다.

성남은 12일 오후 7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볼턴과 피스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2003년 초대 대회부터 출전했지만 결승 진출에 모두 실패한 성남으로선 피스컵이 2009년에는 유럽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번이 홈팀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K-리그 7회 우승 경력의 성남으로선 ‘2전3기’의 각오로 배수진을 쳐야 하지만 첫

관부터 난적을 만났다.

볼턴은 2006~2007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위를 차지한 강호다. 프랑스 대표를 지낸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와 세네갈 출신 스트라이커 엘 하지 디우프가 최전방에서 골문을 위협하고, 웨일스 대표 미드필더 게리 스피드가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한다.

볼턴은 지난 10일 입국하는 자리에서 우승을 담담했다. 2005년 우승한 토트넘에 이어 반드시 우승컵을 거머쥐며 종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성남으로선 완벽하게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한 데다 시즌 종료 후 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볼턴을 상대로 첫 관부터 이변을 연출한다는 계획.

볼턴을 넘으면 멕시코 리그 치바스 과달라하라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싱 산탄데르의 비교적 전력이 엇비슷해 결승 진출도 노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성남은 K-리그 전반기 종료 후 휴식을 가질 틈도 없이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강릉 전지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가다듬었다. 문제는 아시안컵 대표 차출로 인한 전력 약화.

장학영-조병국-김영철-박진섭의 포백(4-back) 수비진과 모파, 김동현 등 공격진은 베스트로 꾸릴 수 있지만 김두현과

손대호, 김상식 등 주전 미드필더 3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중원에 구멍이 뚫렸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맹활약한 한동원에 게 경기 조율을 맡길 계획이지만 기존 미드필더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개막전 승부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라싱과 치바스는 같은 날 오후 8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A조 1차전을 벌인다. 라싱에서 뛰는 키 202cm의 세르비아 출신 장신 공격수 니콜라 지기치가 멕시코 리그 최다 우승팀인 치바스 골문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아시안컵 축구 소식

“질퍽한 잔디에 적응하라”

그라운드 상태 열악...승부 변수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 조별리그 D조에 속한 한국,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령탑이 이구동성으로 조별리그 전제임을 치러야 하는 인도네시아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의 열악한 그라운드 상태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잔디 적응력이 8강 진출의 열쇠로 떠오른 듯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홈팀 인도네시아와 이 경기장에서 1차전을 치른 바레인의 밀란 마칼라 감독은 “나쁜 그라운드 상태가 재앙을 불렀다”며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밀란 감독의 말대로 경기가 끝난 뒤 잔디는 폭격을 맞은 듯 군데군데 파여 있었다. 승기를 잔뜩 머금은 질퍽한 그라운드에선 선수들이 급하게 방향 전환만 해도 축구화 스텔드에 걸린 잔디가 한 덩어리씩 떨어져 나온다.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의 잔디 상태에 대해서 태극전사들도 이미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식(성남)은 “우리 잔디보다 많이 패인다. 게다가 경기시간이 대부분 저녁이라 이슬까지 맺힌다면 많이 미끄러울 것 같다”고 했다.

코사 골키퍼 코치도 발로 누르면 물이 스며 나올 정도로 축신한 잔디를 가리키며 “폭폭 빠진다. 샷을 할 때 발이 빠지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가하기 힘들다”고 했다.

사우디의 엘리우 도스 앙구스 감독도 거들고 나섰다.

앙구스 감독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싱가포르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했지만 잔디가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곳 그라운드 사정은 너무 좋지 않다. 핑계가 될 순 없지만 지장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홈팀 인도네시아만 유리하다는 말이다. 베이백호로선 8강 진출의 마지막 관문인 18일 인도네시아전까지 완전한 적응력을 기르는 게 과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붉은전사 자존심 지켜라”

한국, D조 상대국들과 유니폼 색깔 지키기 신경전

베이백호가 47년 만에 2007 아시안컵축구 정상탈환을 위한 본격적인 전쟁에 나선 가운데 D조 상대국들과 유니폼 색깔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쳐진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태극전사들은 11일(한국시간) 오후 사우디 아라비아와 치르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 대표팀의 주 유니폼인 ‘붉은 상의-흰색 하의-붉은 스타킹’을 착용하고 결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2차전인 바레인전에는 상하의 모두 흰색 유니폼을 입게 되고, 인도네시아와 3차전에선 유니폼을 전부 빨간색으로 맞춰 입고 8강 진출의 마지막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매 경기별 유니폼 색깔을 정하기 위해 한국, 바레인, 인도네시아는 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펼쳐야만 했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D조 4개국 모두 모인 가운데 열린 매니저 미팅에서 각 경기별 유니폼의 색깔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회의는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말았다. 바로 D조에 속한 국가들의 주 유니폼의 색깔이 사우디를 제외하곤 모두 빨간색이었기 때문이다.

매니저 미팅을 펼치는 동안 한국, 바레인, 인도네시아의 주무들은 뭘 수 있겠냐며 경기 자신들의 주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르길 주장했고, 회의는 결론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말았다.

회의가 길어지자 주 유니폼이 녹색인 사우디 주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제발 빨리 합의하라”며 짜증을 냈고, 결국 나머지 3개국 이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유니폼 색깔이 결정됐다.

바레인·印尼 ‘부상 고민’

같은 조 한국 반가운 소식(?)에 ‘은근한 미소’

베이백호의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 조별리그 상대인 바레인과 인도네시아에 ‘부상 정보’가 내려지면서 47년 만에 정상탈환에 나선 태극전사들의 부담을 살짝 덜어주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라 봉카르노 경기장에서 치러진 바레인-인도네시아의 조별리그 D조 1차전 경기는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8만5천여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에 6만여 홈팬들이 모인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경기 초반부터 바레인을 몰아치며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다.

바레인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질퍽한 홈그라운드에 익숙한 인도네시아는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바레인의 골문을 위협했고, 경기 분위기는 과열양상을 띄었다.

결국 후반전 막판에 반칙 상황을 놓고 선수들끼리 목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험한 꼴을 보이는 등 힘든 경기 끝에 인도네시아가 2-1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양 팀 모두 부상자를 속출했고, 인도네시아는 ‘상처뿐인 영광’을 얻고 말았다.

한국과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맞붙게 될 인도네시아는 전반 31분 주장을 맡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마흐야디 광가베인이 태클에 발목을 다치면서 의무팀에 업힌 채 교체아웃됐다.

3분 뒤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나리오 아스타만도 발목을 절면서 교체되는 등 첫 경기부터 부상자를 양산하고 말았다.

한국의 2차전 상대인 바레인과 부상자가 많기는 마찬가지. 체코 출신의 밀란 마칼라 감독은 “부상자가 많아서 한국과 경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한국 역시 주전급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1.5군’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아시안컵을 준비했던 만큼 조별리그 상대국에 내려진 ‘부상 정보’가 태극전사들의 아시안컵 우승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 지켜볼 일이다.



10일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서 벌어진 코파 아메리카 축구 준결승 승부차기에서 브라질 골키퍼가 우루과이의 디에고 루기노 선수가 찬 킥을 막아내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브라질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삼바군단’ 힘겨운 결승행

‘삼바군단’ 브라질이 천신만고 끝에 우루과이를 물리치고 남미 대륙축구선수권대회 ‘코파아메리카 2007’ 결승에 진출했다.

카를루스 동가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대표팀은 1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의 호세 파렌초 로메로 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준결승에서 전·후반 90분동안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간신히 이겼다.

지난 대회 우승팀 브라질은 16일 오전 준결승 멕시코-아르헨티나전 승자와 남미 챔피언 자리를 다툰다.

전통의 라이벌답게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고 브라질이 앞서가던 우루과이가 곧장 따라붙는 양상이 이어졌다.

6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는 호비뉴를 앞세운 브라질은 전반 14분 오른쪽 윙백 마이론이 골문을 열었다.

인터밀란(이탈리아)에서 뛰는 마이론은 미네이루의 슈팅이 우루과이 수문장 파비오

카리나의 몸에 맞고 나오자 달려들며 팽발 솟으로 네트를 갈랐다.

최근 5경기에서 브라질에 저본 적이 없는 우루과이의 반격도 만만찮았다.

조명탑 정전으로 15분 가량 중단됐다 재개된 경기에서 우루과이의 간판 공격수 디에고 포를란이 전반 인저리타입 3분 균형을 맞췄다.

포를란은 코너킥을 브라질 골키퍼 도니가 관청으로 쳐내자 2선에서 도사리고 있다 쪽 깔리는 팽발 솟을 그물에 꽂았다.

브라질은 5분 뒤 줄리우 밥티스타가 마이론의 프리킥을 문전에서 가볍게 차넣어 다시 2-1로 앞섰다.

내용 면에서 밀린 브라질은 후반 잇따라 위기를 맞다 결국 재등점골을 내놨다.

후반 25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우루과이는 포를란의 다이빙 헤딩슛이 골문 앞으로 흐르자 교체 멤버 세바스티안 아브레우가 슬라이딩 솟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브라질, 우루과이에 승부차기 승 남미 축구선수권 ‘코파 아메리카’

결승 티켓의 주인은 연장없이 ‘피 말리는 톨렛게임’ 승부차기로 가려졌다.

호비뉴가 선축한 브라질은 실수없이 잇따라 킥을 꽂았고 우루과이는 1번 키커 포를란의 킥이 골키퍼 발에 걸렸다.

하지만 브라질도 4번 키커 아폰소가 골대를 맞춰 4-4가 됐다.

브라질 6번 키커 페르난두가 또 골대를 맞춰 우루과이가 행운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파블로 가르시아의 킥이 골 포스트를 정통으로 맞고 나왔다.

그대로 4-4에서 브라질은 7번 키커 지우베르투가 킥을 꽂았고 우루과이 디에고 루가노의 킥은 한 걸음 튀어나온 도니의 선방에 막혔다.

동가 감독은 팔을 번쩍 들어 환호했고 관중석엔 삼바축구를 연호하는 노란색 물결이 넘실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챔스리그 우승상금 AC밀란 500억원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클럽 AC밀란이 2006~200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배당금 500억 원을 받게 됐다.

UEFA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AC밀란이 대회 마케팅 수입 배당금으로 출전팀 중 가장 많은 3천959만 유로(약 500억 원)를 받는다고 11일 발표했다.

AC밀란은 지난 5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잉글랜드 전통의 강호 리버풀을 2-1로 제치고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리버풀과 4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된 잉글랜드 부자구단 첼시가 3천466만 유로, 리버풀이 3천222만 유로로 뒤를 이었다.

준결승에서 AC밀란에 패한 박지성의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천153만 유로로,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3천160만 유로)에 이어 5위에 올랐다.